꿈이 있어 그 꿈을 위해 나아가는 극단 온누리는

1992년에 창단하여 꾸준히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연극작품창작을 지향하고 지역의 전문 스텝 활성화와 인력의 발굴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창작과 실천을 통한 활동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극단이다.

www.playonnuri.co.kr

92년 창단공연
93년 금복 문화 연극부문 단체상을 수상
제10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제12회 대구연극제 연출상
제14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제20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우수연기상, 무대미술상을 수상
제24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우수연기상2인.
제36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제6회 목련연극제 연기상
제11회 전국연극제 문예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고
제21회 전국연극제 은상(충청남도지사상), 무대예술상 수상.
제25회 전국연극제 은상(한국문예진흥원장상), 연기상수상

2002년에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 예술극장 온 개관하였고
28년간 활발한 창작활동과 극단의 레퍼터리를 완성하고 있다.

이 국 희

극단 온누리 대표
대구시립극단 예술감독(전)
극단 누리 예술감독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졸
대구연극협회 부지회장역임
대구연극협회 이사역임
대구연극협회 이사

계명문화대 특임교수

경력
93 금복 문화 예술상 단체상
제10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제11회 전국연극제 문예진흥원장상
제12회 대구연극제 연출상
제14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제20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제21회 전국연극제 충정남도지사상
제24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제25회 전국연극제 한국연극협회이사장상
제36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주요작품

연극-'세일즈맨의 죽음',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사의찬미', '마로위츠 햄릿', '태', '종로고양이', '진땀흘리기','노을 앞에서', '피박', '양덕원이야기', '경숙이,경숙아버지'등 100여편 연출

뮤지컬-
'달구벌에파타', '동물농장', '돈키호테', '로미오와줄리엣'외 20여편 연출
무용-'오히려 주몽', '마돈나!나의아씨여'외 10여편 연출

극단 온누리 주요공연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제10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연기상
제11회 전국연극제 문화예술진흥원장상

“술래잡기”

제12회 대구연극제 연출상

“태”

제14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제15회 전국연극제 참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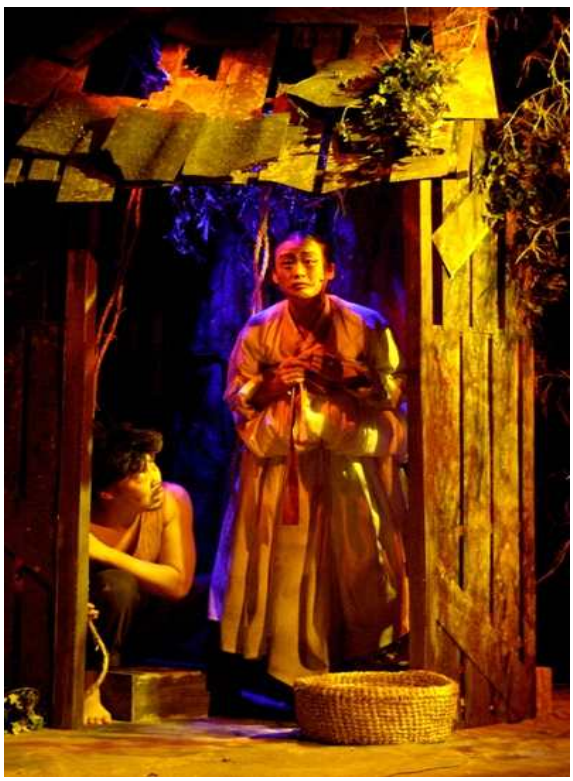
무협액션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진땀흘리기”

제20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우수연기상 2인

제21회 전국연극제 충북도지사장상, 무대예술상

“흉가에 볕들어라.” 호러연극제 참가작



“경숙이, 경숙아버지”

제24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연기상

제25회 전국연극제 문화예술진흥원장상, 연기상

“TV동화 행복한 세상”

대구학생문화센터 학생문화예술 공연관람 체험학습 공연작품

“외출”

제36회 대구연극제 대상, 연출상

작품소개서

뮤지컬

돼지 삼형제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소중히 생각하는

극단 온누리

www.playonnuri.co.kr

-목차-

1. 기획의도

2. 작품 분석 및 줄거리

3. “돼지 삼형제” 공연사진

1. 기획의도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소중히 생각하는 극단 온누리는 연극이 즐겁고 유익한 놀이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적극적 표현 방법을 통해 예술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객과 함께 하는 뮤지컬“돼지삼형제”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예술 감각함양과 자기 표현력과 상상력, 창의력개발 그리고 연극을 효율적인 교육 수단과 놀이로 활용, 무대 위에 펼쳐지는 공연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집적 체험토록 한다. 관객과 함께 하는 작품적 특성을 살려 호기심과 집중력, 상상력을 유발시키고 어린이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문화 향수 층을 확대하고자 한다.

2. 작품 분석 및 줄거리

돼지 삼형제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극적인 형태로 감동을 준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일을 대강대강 처리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게 하다가는 망할지도 모른다고 가르친다. 지적인 계획성과 안목에다가 힘든 노동이 결합되면 아무리 난폭한 적인 늑대를 만나더라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내면적으로 볼 때 돼지의 행동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 인성에서, 초자아의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아의 지배를 받는 인성으로의 발달을 의미한다.
이 난폭하고 파괴적인 늑대는 자신을 지키고 자아의 힘으로 물리쳐야 하는 이기적이고 무의식적인 자기 파괴적 힘을 상징한다.
늑대의 나쁜 마음이란 어린이들도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느끼는 그 무엇, 즉 혼자 먹어 치우려는 욕심이다. 그리고 늑대의 결말은 자신도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일으킨다.
늑대는 어린이가 지닌 나쁜 심성을 투사하여 표면화시킨다. 그리하여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어린이가 자신의 이런 면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어린이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그 주인공들 중 하나와 자기를 동일시하며 희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능이 발달하면 훨씬 힘센 적과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돼지 삼형제는 어린이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의 성숙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며 또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게 한다. 어린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진짜 성숙으로 나아간다. 많은 경우에 어린이에게 이래라저래라 해서 성숙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은, 미성숙의 굴레를 훈계의 굴레로 바꾸는 것일 뿐이다.

극단 온누리의 돼지삼형제는 관객이 참여하는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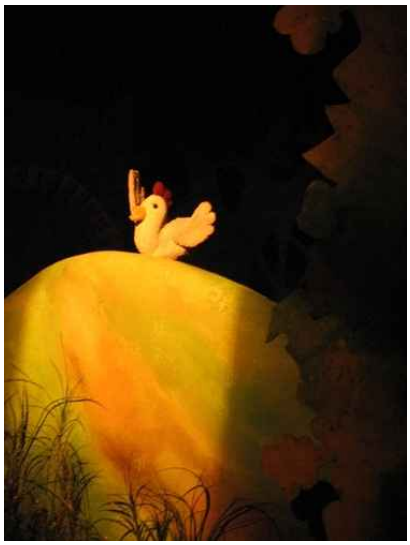
극 속의 인물과 하나가 되어 이야기를 꾸며가는 어린이들, 첫째가 낚시를 하려고 하면 관객은 물고기가 되어 게으른 첫째를 놀리기도 한다. 빨리 물고기가 헤엄치기도 하고 느리게 헤엄치기도 하고 다양한 놀이로 어린이들은 극에 더 집중하게 된다.

"극단 온누리의 돼지삼형제는 돼지바람으로 관객이 하나 되다.
사과를 반으로 잘라 접시에 놓고 쑵~!"

이 순간만큼은 나이도 성별도 없다. 극장안의 모든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늑대가 되어
사과를 반으로 잘라 접시에 놓고 쑵~! 대충대충 지은 첫째와 둘째 집을 날려버린다.
오른손에 찍힌 돼지바람도장으로 모두 손을 모으고 하나의 소리에 입을 맞추어 공연 내내 돼지바람을 부는 어린이들, 대충대충 지은 첫째와 둘째집이 날아 갈 땐 그들을 벌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차곡차곡 벽돌집을 지은 셋째 집은 어느 하나라도 부서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돼지바람을 분다.

끄떡도 하지 않는 셋째 돼지 집을 보며 아이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극단 누리의 돼지삼형제는 동화 책속의 환상의 무대와 다양한 소품들로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준다.



파스텔톤의 무대와 동화의 세계로 안내하는 부엉이아저씨, 첫째 돼지 집과 둘째 돼지 집을 소개하는 허수아비 아저씨, 깜찍하고 수다스런 닭 등의 다양한 캐릭터들로 연극적인 요소들을 첨가하여 보다 극의 재미를 더 한층 증가시켰다.

동화책속의 주인공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미니어처들과의 조화로 원근감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줄거리

놀기를 좋아하고 대충대충 하는 성격의 첫째,
아이스크림과 초콜렛을 잘 먹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둘째,
형들을 좋아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셋째.
장난꾸러기 삼형제는 어느 날 부엉이아저씨를 따라 동화 속 세상으로 여행을 떠난다.
동화 속 세상에서 돼지가 되어버린 삼형제.
늑대를 조심하라는 부엉이아저씨의 당부는 듣지 않은 채 각자 제 갈 길로 떠나버려요.
한편 돼지삼형제 소식을 접한 늑대는 이들을 잡아먹기 위해 찾아 나선다.
첫째는 대충대충 밀집을 짓고,
둘째는 꾸미는데 만 신경 써서 작고 귀여운 나무집을 꾸미고,
셋째는 느리지만 차곡차곡 튼튼한 벽돌집을 짓게 됩니다.
늑대에게 집이 순식간에 날아 가버린 첫째, 둘째 돼지. 이제 남은 것은 셋째의 집 뿐.

삼형제는 서로의 능력을 모아 늑대를 물리치기로 하는데....

-장면요약-

장면1 친구들과 신나게 놀자

배우들과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우러지는 시간을 갖는다.
(노래-커다란 수박하나 등)
그리고 **'사과를 반으로 잘라 접시에 놓고 슝~'**하는 주문을 배운다.
(이 주문은 공연 중 허술한 첫째 돼지집과 둘째 돼지집을 날릴 때,
늑대를 혼내줄 때 관객들과 함께 하게 된다.)

배우들과 관객들이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엄마는 그만 놀고 자야 될 시간이라고 알린다.
또 엄마는 장난감을 어질러 논 첫째에게 모두모두 제자리로 정리하라하고
아이스크림 초콜렛을 먹어 밥을 남긴 둘째에게는 밥을 많이 먹으라하고
컴퓨터를 너무 오래하는 셋째에게 눈이 나빠지니 정리하라고 한다.
엄마는 삼형제에게 세수하고 손 씻고 이 닦고 자라고 한다.
삼형제는 잔소리하는 엄마가 귀찮고 싫다.
엄마의 잔소리가 없는 곳을 관객들과 의논한다.
이 때 갑자기 부엉이아저씨가 나타나 삼형제를 동화 속 세상으로 안내한다.

장면2 동화 속 나라

동화 속 세상에서 돼지가 되어버린 삼형제는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다.
첫째와 둘째는 엄마의 잔소리가 없는 곳으로 와서 신나하지만

셋째는 엄마가 걱정할 거라며 돌아가자고 한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는 마냥 신나기만 하다.
삼형제에게 부엉이아저씨는 늑대를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셋째는 부엉이아저씨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자고 제안하지만 첫째와 둘째는 귀찮아하고 낚시와 먹을 것을 찾아 각자 제 갈 길로 떠나버린다.

장면3 첫째와 둘째의 집짓기

놀기를 좋아하는 첫째는 대충대충 집을 짓고 낚시를 한다.
둘째는 꾸미는데 만 신경 써서 작은 나무집을 짓고 피곤해서 잠을 잔다.
셋째는 무슨 일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벽돌집을 짓게 된다.

장면4 양우체부 아저씨

한편 배고픈 늑대는 양우체부아저씨를 통해 돼지 삼형제의 소식을 전해 듣는다.
돼지삼형제를 잡아먹기 위해 돼지삼형제의 집을 찾아 나선다.

장면5 첫째와 늑대

첫째 집을 금방 찾아 낸 늑대.
늑대는 허술하게 지은 첫째 돼지집을 날려버린다. 첫째 돼지도 날아가 버린다.

장면6 둘째와 늑대

둘째 집을 찾아 낸 늑대,
늑대는 이쁘게만 지은 통나무집도 한 번에 날려버린다. 둘째 돼지도 날아가 버린다.
늑대는 이제 셋째네 벽돌집을 찾아간다.

장면7 튼튼한 셋째집

첫째와 둘째는 급하게 셋째집으로 도망을 온다.
기초부터 차근차근해서 튼튼하게 지은 셋째네 벽돌집은 늑대의 입김에도 끄떡없다.
삼형제는 셋째의 지혜로 힘을 합쳐 늑대를 혼내준다.
초조해진 늑대는 굴뚝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삼형제는 관객들과 힘을 합쳐 불을 피워서 늑대를 물리친다.
첫째와 둘째는 매사에 대충하고 꾸미는데 만 신경 쓴 자신들을 반성한다.
또 엄마의 이 깨끗이 닦아야지, 손발 깨끗이 씻어야지, 음식은 골고루 꼭꼭 씹어 먹어야지 등등
엄마의 잔소리가 모두 사랑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삼형제는 서로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3. “돼지 삼형제”공연사진